

濟州島 方言의 先語末語尾 “-느-”에 대한 試考

洪 宗 林

A Pilot research for a profinal ending
“Nū” in Cheju-do dialect

Hong, Jong Lim

I

1.1. 서울方言에서는 ‘먹는다·간다’ 등의 ‘-는-·-ㄴ-’을 現在進行形語尾나 敍術形語尾(뒤에 오는 ‘-다’와 결합하여) 등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現在形語尾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가 아닌가 한다. 本方言에서도 이와 비슷한 形態로 “먹느냐, 먹나, 간다” 등의 ‘-느-·-ㄴ-’을 指摘할 수 있을것 같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例에서,

- (1) 창수도 [·]혹[·]계 [·]땡[·]긴[·]다. (창수도 학교 [·]다[·]닌[·]다.)
- (2) 민수넌 부산 [·]산[·]다. (민수넌 부산 [·]산[·]다.)
- (3) 이젠 가[·]이도 나 말 잘 [·]듣[·]나. (이젠 그 애도 내 말 잘 [·]듣[·]는다.)

(3)의 ‘듣나’와 ‘듣는다’에서 다소 形態的인 相異를 보이나, 두 方言 사이에 意味上 別다른 差異點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땡긴다, 산다’의 ‘-ㄴ-’과 ‘다닌다, 산다’의 ‘-ㄴ-이 類似한 一面을 찾아 볼수 있다.

1.2. 그러나 이러한 몇몇 局限된 例文을 가지고 用法의 同一性을 고집할 수는 없다. 서울方言에 있어서 그 形態들이 時制範疇로 把握된다 하더라도, 本稿의 論議過程에서 本方言의 ‘-느-·-ㄴ-’들은 이들과 形態뿐만 아니라 意味上에서도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이들 形態의 意味의 一端을 살피는 試考에 머물게 될 것이다.

II

2.1. 本稿의 序頭는 두 개의 假定 위에서 출발되었다. 하나는 ‘먹느냐, 먹나, 산다’ 등의 ‘-느-·-ㄴ-’이 同一形態素의 異形態라는 假定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形態素의 基本形態를 ‘-느-’로 본다는 假定이다.

1) 南濟州郡 城山邑 新陽里와 그 이웃마을 古城里를 中心으로 한 地域方言이다.

2.2.1 前者의 경우는 다음 文들의 形態素分析過程에서 自明해질 것이다.

- (4)a. 가인 어딜 잘 가느니? (그 애는 어딜 잘 가니?)
 b. 가인 바닷가에 잘 간다. (그애는 바다에 잘 간다.)
 (5)a. 자인 어디 감치니? (저 애는 어디 가고 있니?)
 b. 자인 바닷가에 감쳐, (저 애는 바다에 가고 있다.)

이들 例에서 (4a) (5a)의 ‘가느니’와 ‘감치니’는 각각 ‘가-느-니’와 ‘가-암시²⁾-니’로 分析된다. 그리고 (4b) (5b)의 ‘간다’와 ‘감쳐’는 각각 ‘가-ㄴ-다’, ‘가-암-찌’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다’를 ‘가-ㄴ다’로 分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疑問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狀態動詞³⁾의 경우를 살펴 보자.

- (6)a. 이 신은 느안티 크느냐? (이 신은 너한테는 크-5?)
 b. 으, 나안티 크다. (응, 너한테는 크-.)
 (7)a. 이 신은 느안티 크냐? (이 신은 너한테 크니?)
 b. 으, 나안티 크다. (응, 너한테는 크다.)

이들 例에서 (6a) (7a)의 ‘크느냐’와 ‘크냐’를 對照해 보면 前者가 ‘크-느-냐’로 分析됨을 알 수 있고, (6b) (7b) ‘크다’의 對照에서는 ‘크-ㄴ다’로 分析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 다른 例를 살펴 보기로 하자.

- (8)a. 자인 무시거 잘 먹느니? (저 앤 무어 잘 먹니?)
 b. 자인 과자 잘 먹나. (저 앤 과자 잘 먹는다.)
 (9)a. 자인 무시거 먹었치니? (저 앤 무어 먹고 있니?)
 b. 자인 과자 먹었찌. (저 앤 과자를 먹고 있다.)

이들 例의 (8a) (9a) 對照에서 ‘먹느니’가 ‘먹-느-니’로 分析됨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8b) (9b)의 對照에서 ‘먹나’는 어떻게 分析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도 (4b)의 ‘간다’와 같이 ‘먹는다’를 기대했으나 音韻論적인 어떤 부득이한 理由(2.2.2. 참조)에서 敘述終結語尾 ‘-다’의 ‘ㄴ’의 脫落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먹-ㄴ-아’로 分析해 보직하다.

2) 未完了相의 形態로 파악된다.. (洪宗林 1976) 未完了存續相으로 보는 見解도 있음(玄平孝, 1974)

3) 用言을 動詞, 形容詞로 區分하지 않고 動作動詞와 狀態動詞로 區分했다. 자세한 것은 洪宗林(1976) 참조.

4) 疑問法의 한 形態. ‘-니’가 說明疑問의 形態인데 反하여, ‘-나’는 判定疑問의 形態임. (洪宗林 1975, 169~183)

5) 形態素 ‘-느-’의 翻譯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狀態動詞의 경우는 거의 不可能한 것 같다.

‘-다’를 敘述終結語尾로 갖는 狀態動詞의 경우도 보면, 위의 例(6-7)에서 (6b)의 ‘큰다’는 ‘크-ㄴ-다’로 分析되었다. 이 때의 ‘-다’는 (7b)의 ‘크다’의 ‘-다’와 같은 敘述終結語尾로서 (6a)의 判定疑問의 終結語尾 ‘-냐’에 對應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 例들은 어떠한가?

- (10)a. 이 新은 느안턴 족느냐? (이 新은 너한테는 작-?)
 b. 으, 나안턴 족나. (응, 나한테는 작-.)
 (11)a. 이 新은 느안터 족으냐? (이 新은 너한테 작니?)
 b. 으, 나안턴 족다. (응, 나한테는 작다.)

이 例文들은 앞의 例文(6-7)의 敘述動詞 ‘크-’를 ‘족’으로 代置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10a)에 ‘느냐’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b)에 ‘ㄴ다’를 기대한다. 더구나 그 語幹이 狀態動詞이기 때문에 終結語尾로 ‘-다’가 올 가능성이 많을 것같이도 보인다. 그러나 動作動詞의 경우와 같이 ‘-냐’로 나타났다. 이것은 ‘-ㄴ-’에만 대응된다든지 ‘-다’에만 대응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ㄴ다’ 전체에 對應되는 것으로 보고 ‘-ㄴ-’과 ‘-아’로 分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상의 論議에서 우리는 ‘-느-’와 ‘-ㄴ-’을 分析해낼 수 있었다. 正常的인 文으로 이루어진 質問과 그 應答에 있어서는 時相이나 敘法 등, 소위 文體法 이외의 文法範疇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前提로 하면, 이들 두 形態가 한 形態素의 異形態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2. 그런데, 이 두 形態의 文替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⁶⁾? 위의 例文(4)(6)을 보면, ‘-느-’에 後行하는 語尾는 ‘-니·-냐’이고, ‘-ㄴ-’에 後行하는 語尾는 ‘-다’임을 알 수 있다. 前者는 ‘족으니, 족으냐’에서와 같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이고, 後者는 ‘족다, 좋다’에서와 같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이다. 뒤에 母音系語尾가 오느냐 子音系語尾가 오느냐가 ‘-느-’와 ‘-ㄴ-’의 交替條件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 ‘-느-’를 基本形態로 잡는다면,

- (A) 가+느+오니→가+느+니→가느니
 (B) 가+느+다→가+ㄴ+다→간다

로, 그리고 ‘-ㄴ-’을 基本形態로 본다면,

- (C) 가+ㄴ+오니→가느니
 (D) 가+ㄴ+다→간다.

6) 여기서 주로 基本形態의 決定과 異形態들 間의 交替條件이 考察된다. 이러한 論議가 可能했던 것은 金完鎭(1975)의 示唆의 德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適用上에 惹起되는 過誤나, 用語의 差異 또는 資料의 相異에서 오는 責任은 오로지 筆者에게 돌아와 마땅하다.

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說明의 經濟性을 생각할 때 前者(AB)보다 後者(CD)가 優位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使證가 基本形態決定의 正當性을 保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本方言의 ‘-느-·-ㄴ-’形態가 서울方言의 現在形語尾 ‘-ㄴ-·-는-’과 形態·分布·意味上 差異를 보이고 있음이 事實이긴 하나, 그렇다고 전혀 關係가 없는 것 같지도 않다. (例1-3참조) 오히려 同一한 形態素였던 것이 時代의 變遷에 따라 각기 獨自的인 發展過程을 겪어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十五世紀 國語에서 現在形語尾로 把握되는 ‘-ㄴ-’가 뒤에 ‘-느-’로 變化되었음은 이미 公式的인 事實로 指摘되었다. 그런데 이 ‘-느-’의 母音의 脱落은 本方言에서 「義務的」인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가크냐, 가크라’의 ‘-크-’는 年少層의 發話에서는 ‘가키여’로 들리지만, 年老層의 發話에서 분명히 ‘카키여’로 들린다. ‘-크-’가 名詞形語尾이기 때문에 뒤에 語尾 ‘-이여’가 온 形態인데, 만일 ‘-크-’의 母音이 義務的으로 脱落되는 것이라면 이런 形態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現象은 ‘-크-’의 母音이 母音系語尾 앞에서 脱落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느-’에 있어서도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 같다. 그리하여 ‘가+크+으냐’→‘가+크+냐’→‘가크냐’에서와 같이 ‘-느-’의 경우에도 終結語尾의 ‘으’가 脱落되는 것으로 본다. (위의 圖式 A참조)

그러나 子音系語尾 앞에서는 ‘-느-’의 母音이 脱落된다. 이러한 現象은 本方言의 ‘이시-(有)에서도 確認될 수 있다. 이 語幹形態素는 母音系語尾 앞에서는 末母音이 維持되지만, (이시냐, 이시민, 이시난)’” 子音系語尾 앞에서는 末母音이 脱落된다. (잇찌, 잇고, 잇지) 만일 末母音의 介入으로 본다면 ‘*이스냐, *이스난’과 같은 實現不可能한 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母音系語尾 앞에 오는 ‘-느-’를 基本으로 잡고 子音系語尾 앞에서 母音이 脱落되어 ‘-ㄴ-’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자 한다.

그런데, (A)에 있어서는 語幹形態素가 母音으로 끝나든 子音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뒤에 오는 語尾가 母音系이므로 ‘-느-’로 나타나나, (B)의 경우에는 語幹이 子音으로 끝나게 되면 樣想은 달라진다. (例文 8b, 10b 참조)

(E) 먹+느+다→먹+ㄴ+다→*먹는다

에서와 같이 母音間에 三子音이 介在되는 아주 난처한 結果를 나타내는데, 서울方言의 경

7) 本方言에 있어서도 母音系語尾 앞에서는 ‘이시-’와 ‘시-’의 交替는 自由롭다. 그러나 北濟州地域에서와는 달리 子音系語尾 앞에서는 이러한 交替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잇찌, 잇고, 잇지’ 등은 이 地域에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우에는 形態素 重加에 의하여 이러한 難點이 解決되지만, (金完鎭, 1975, p.11) 本方言에서는 이러한 解決策을 취하지 않고 三子音中 마지막 ‘ㄷ’을 脱落시킴으로써 解決하였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것이 ‘ㄱ’을 脱落시키면 ‘食’의 意味가 사라지겠고, ‘ㄴ’을 없애자니 한 形態素가 완전히 빠져 버리는 結果가 될 테니, 子音を 脱落시켰어도 그 形態素의 痕迹이 남아 있을 ‘-다’를 택하여 ‘ㄷ’을 脱落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形態素의 한 가지 屬性을 찾아낼 수 있다.

形態素 ‘-느-’는 後行하는 語尾가 母音系나 子音系에 따라 ‘-느-’ 또는 ‘-ㄴ’으로 交替되지만, 그에 先行하는 語幹形態素에서는 아무런 音韻論的 影響을 받지 않는다.

2.3 이상에서 우리는 形態素 ‘-느-’를 ㅎ라 體의 資料에 局限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ㅎ서體에서도 이 ‘-느-’는 發見된다.

- (12)a. 가인 어디 잘 멩기느니? (그 애는 어디 잘 다니니?)
 b. 가이 바당에 잘 멩깁네다. (그 애 바다에 잘 다닙니다.)
 (13)a. 가인 약 잘 먹음네까? (그 애는 약 잘 먹습니까?)
 b. 예, 잘 먹음네다. (예, 잘 먹습니다.)
 c. ㄹ, 잘 먹나. (응, 잘 먹는다.)
 (14)a. 흑젠 이디서 ㄹ답네까? (학교는 여기서 가깝습니까?)
 b. 예, 이디선 ㄹ답네다.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 例에서 (12)(13)은 敍述語가 動作動詞이고 (14)는 狀態動詞의 例를 보인 것이다. (12)의 問答에서 (b)의 ‘멩깁네다’는 ‘멩기-ㅂ-네-다’로, 그리고 (13)의 경우 (a)의 ‘먹음네까’는 ‘먹-음-네-까’로 일단 分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形態素 ‘-느-’가 여기서는 ‘-네-’로 實現되었다고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分析方式으로는 說明되지 않는 奇異한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네-’는 ‘-내-’로도 나타난다. 日常談話에서는 ‘-네-’가 一般的이고 ‘-내-’를 發音할 때도 그 音價가 그리 分明하지 않지만, 巫歌에서는 이 音이 分明하게 들린다. 이 形態는 ‘음-다’ (또는 ‘까’)의 環境에서만 나타난다. 그렇다고 ‘ㄷ-ㄴㄷ’과 같이 母音間의 三子音이 介入되는 音韻論的 難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母音이 補強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이 形態의 根源을 中世國語의 ‘-ㄴ이-’로 溯及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느-’는 現在形語尾로 指摘되는 것으로서 ‘-ㄴ-’의 古形이며, ‘-이-’는 恭遜法語尾이다. 우리는 그 發展過程을 <ㄴ이→ㄴ이→ㄴ이→내→네>⁸⁾로 잡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8) 이것은 하나의 假說에 不遇하다. 여기에는 많은 論難이 豫想된다. 本方言의 音韻史的 脈絡속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들이다.

여기서 ‘-내²’ 또는 ‘-네-’는 두 形態素의 結合體이다. E.A.Nida가 말하는 simultaneous occurrence이다. 이의 記述은 ‘-내-’ ‘-네-’와 ‘-애-’ ‘-에-’가 될 것이다.

Ⅲ

3.1. 지금까지 우리는 形態素의 異形態 ‘-느-·-니-·-네-’들을 確認하고 그 交替條件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서는 이 形態素가 다른 形態素들과 어떻게 共起되나를 檢討해 봄으로써 그 本性에 接近하고자 한다.

3.2. 다음 例를 보면,

- (15) a. 그 사람은 메달 일만 허느냐? (그 사람은 매일 일만 하니.)
 b. 오, 그 사람은 메달 일만 한다.
 (16) a. 가인 요새 용심만 뱌네까? (그 앤 요새 화만 뱌니까?)
 b. 예, 어떻게 일산디 용심만 뱌네다. (예, 웬일인지 화만 뱌니다.)
 (17) 느도 잘못허민 매맞나. (너도 잘 못하면 매맞는다.)
 (18) 느도 살암시민 살아진다. (너도 살고 있노라면 살게 된다.)
 (19) 난 이추록 일허명 산다. (난 이렇게 일하면서 산다.)
 (20) 우린 맥주보다 소졸 잘 먹나. (우리는 맥주보다 소주를 잘 먹는다.)

이 例들은 그 敘述語가 모두 動作動詞이다. 形態論的인 面에서 보면, ‘-니-’에 後行하는 語尾는 平敍法에 局限된다. 다만 (16)의 ‘-네-’는 發生的으로 ‘-이-’가 後行되었다. 이 ‘-느-’에 先行하는 形態素는 ‘-네-’의 경우 ‘-느-’는, 相의 形態素 ‘-암시-’, ‘-아시-’들 (拙稿 1976)이 呼應하는 命令法이나 請誘法의 語尾들과 呼應되지 않는다는 點에서 敍法形態素 ‘-르꺼-, -크-’ (拙稿(1980)와 같으나, ‘-르꺼-, -크-’가 自由롭게 呼應하는 ‘-암시-, -아시-,’들을 껴려한다⁹⁾는 點에서 이들과 다른 特性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例에서 (15)(16)는 主語가 三人稱이고, (17)(18)은 二人稱, (19)(20)는 一人稱이다. 이 形態素는 人稱의 制約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그러나, 疑問文에서는 ‘-느-’와 ‘-네-’의 呼應이 비교적 자유롭다.

- (1a) 나 먼저 걸엄시느냐?
 (1b) 예, 먼저 걸엄시셔.
 (2a) 나 먼저 먹엄시네까?
 (2b) 기여, 먼저 먹엄시랴.
 (3a) 나 먼저 가시느냐?
 (3b) 예, 먼저 가시셔.

相의 形態 ‘-암시-, -아시-’가 자연스럽게 ‘-느-, -네-’에 前接된다. 그런데 이들 疑問文은 모두 主語가 一人稱이며, 그 應答은 命令文이어야 한다. 이들 ‘-느-, -네-’가 形態素 ‘-느-’의 異形態이기 까지는 이리 變換이다.

3.3. 이 形態素는 狀態動詞나 名詞의 語幹과 結合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注目할 만한 事實로 여겨진다.

- (21) 이 구들은 참 춧나. (이 방은 참 따뜻하—.)
 (22) 죽은 고치가 맵나. (작은 고추가 맵—.)
 (23) 내일도 날씨가 좋나. (내일 날씨 좋—.)
 (24) 뚝게 입으라. 배짱이 나가면 춤나. (따스게 입으라. 바깥에 나가면 춥—.)
 (25) a. 이 세계터런 무신 곡석이 대중이느니? (이 지방으론 무슨 곡석이 대중이—.)
 b. 이렌 감저가 대중인다. (이쪽으론 고구마가 대중이—.)
 (26) a. 이렌 돈딱 자갈밭입네까? (이쪽으론 모두 자갈밭입—?)
 b. 응, 이렌 돈딱 자갈밭인다. (응, 이쪽으론 모두 자갈밭이—.)

이들 例에서 (21-24)은 敘述語가 狀態動詞이고, (25)(26)은 名詞이다. 後者의 경우는 疑問文의 例도 보였다. 形態素 ‘-느-’가 나타나는 環境은 위의 動詞의 경우와 같이 語幹形態素를 先行시키고, 平敘法과 疑問法의 形態素를 後行시킨다.

IV

4.1 한 形態素의 確認이 窮極的으로 그 意味의 確認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形態素 ‘-느-’의 異形態를 分析해내고 그 分布의 特性을 調査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一聯의 作業들도, 그 異形態들 間에 意味의 同一性を 確認하지 못한 이상, 그 成果는 하나의 假設에 不過하다. 아니할 수 없다.

4.2. 發話時點은 언제나 現在이다. 話者의 눈 앞에 버려지고 있는 움직이는 모습, 즉 動相이나, 정지되어 있는 狀態, 즉 靜相의 知覺內容을 陳述한다면, 그 時制도 現在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다음 例의 時制도 現在라 할 수 있다.

- (27) 자인 밤 먹^히찌¹⁰⁾. (자 애는 밤 먹고 있다.)
 (28) 자인 ㅁ싸 왔찌. (저 애는 아가 왔다.)

話者의 눈 앞에 ‘저 애’가 ‘밤 먹는’ 動作이 이루어지고 있다. (27)의 發話瞬間에도 그 動作은 持續되고 있다. (28)도 ‘저 애’가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이다. 다만 ‘왔-’이 完了相이기 때문에 지금 狀態 이전에 ‘온다’는 動作이 含意되어 있을 뿐이다. ‘온다’는 動作이 完了된 現在 狀態의 陳述이다.

10) ‘암서.’ ‘-아서.’의 意味에 대해서는 拙稿(1976) 참조.

文例 (27)(28)은 話者의 눈 앞에 나타난 動相에 대한 知覺作用과 同時에 이루어진 發話이다. 그러나 知覺作用과 그 陳述이 時差를 두고 實現될 때에는 發話樣相이 달라진다.

(29) 가인 밥 먹^어서라. (그 애는 밥 먹고 있더라.)

(30) 가인 학교 가^서라. (그 애는 학교에 가 있더라.)

(29)의 ‘먹^어서라’는 ‘먹+엄시+어+라’로, 그리고 (30)의 ‘가^서라’는 ‘가+아시+어+라’로 일단 分析해 본다. 本方言에서는 이른바 回想法의 ‘-더-’가 ‘-어-’로 나타나는 것이 一發的이다. 이들의 發話時點은 現在이다. 그러나 話者가 ‘그 애’의 밥 먹는 動相을 知覺한 것은 그 이전이다. 마찬가지로 話者가 ‘그애’를 學校에서 知覺(發見)한 것도 그 이전의 일이다.

例文(27-30)의 發話는, 그것이 話者의 知覺作用과 同時에 일어났든 또는 時差를 두고 일어났든 知覺內容의 陳述이란 點에서는 同一하다. 그러나 形態素 ‘-느-’는 경우가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다.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發話를 했다고 하자.

(31) 비 왔^어. 혼적 가^게. (비가 오고 있다. 빨리 가자.)

(32) 비 온다. 혼적 가^게.

(31)의 狀況은 비가 오고 있다. 知覺內容의 同時的 陳述이다. ‘빨리 가자’는 뜻은 비를 덜 맞자는 것이다. (32)의 경우는 아직 비가 오고 있지는 않다. ‘빨리 가자’는 것은 비를 맞지 말자는 뜻이다. 知覺內容의 陳述이 아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知覺作用은 不可能하다. 이러한 點에서는 다음 發話도 마찬가지로이다.

(33) 혼설 이시^면 비 겠^꺼여. (조금 있으면 비 겠꺼야.)

(34) 혼설 이시^면 비 개^겠여. (조금 있으면 비 개겠다.)

(35) 혼설 이시^면 비 겐^다.

이들 세 例文의 狀況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話者는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얼마 없으며 비가 개리라는 判斷을 한다. 그런데, (33)은 話者自身이 ‘비가 안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어 버리지 못한 發話이고, (34)의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自身의 確信으로 떨어 버린 發話라 할 수 있다.¹¹⁾ (35)에 있어서는 ‘비가 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發話로 본다. ‘비가 겐다’는 생각에 대한 確者의 支持度로 보면, ‘겠꺼여’가 가장 낮고, ‘겐다’가 가장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經驗에 의한 判斷의 陳述은 ‘-르꺼-’, ‘-크-’, ‘-느-’ 形態素에 따라 그 樣相이 달라진다. 이 중에서 ‘-느-’의 경우가 가장 確實성이 크다.

11) ‘-르꺼-’와 ‘-크-’의 意味에 대해서는 拙稿(1980, 573~580) 참조.

이러한 사실은 다음 例들에서도 把握될 것이다.

- (36) 내일도 헨 틀꺼여.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37) 내일도 헨 트끼여.
 (38) 내일도 헨 튼다.

이 例文 中에서 (36)(37)이 좀 어색한 느낌이다. ‘내일 해가 뜬다’는 事實은 確實性이 매우 큰 것인데도 (36)(37)은 오히려 ‘해가 안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37)은 確實한 事實, 當然한 事實에 대하여 話者自身의 確信까지 보였으니 더욱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떤 判斷에 대한 確信이란 그 判斷의 可能性이 一般的으로 稀薄하다고 생각되는 狀況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다.

例(38)이 가장 自然스럽다.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確實한 事實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事實의 陳述에 ‘튼다’가 잘 어울리는 것은 形態素 ‘-느-’가 그만큼 支持度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일의 일이라 確認된 것은 아니지만, 話者는 自己의 經驗에 의하여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實際로 目前에 展開되는 事實과 同一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判斷의 樣相으로 보면 實然判斷이다. 이것이 形態素 ‘-느-’의 意味라고 생각한다.

4.3. 지금까지 우리는 敘述語를 動作動詞에 限定시켜 ‘-느-’의 意味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狀態動詞의 경우는 어떠한가?

- (39) A: 이 구들은 총 댕다. (이 방은 참 따뜻하다.)
 B: 이 구들은 댕나.

(A)와 (B) 두 사람의 對話이다. 그 들은 방에 앉아 있다. 우리는 이 對話만으로 금방 누가 主人이고 누가 客人인 것을 알 수가 있다. (A)의 發話는 ‘이 방’이 그 發話時點에 따뜻한 狀態임을 말하는 것이다. 一種의 知覺作用에 의한 判斷이다. 그러나 (B)의 發話는 ‘이 방’의 發話時의 狀態라기보다 그 방의 一般的인 性質을 말한다. 話者는 ‘이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전부터 經驗하여 왔다. 지금 그 방이 따뜻한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話者의 經驗에 의한 判斷이다. (A)는 客人이고, (B)는 主人이다. 만일 (A)가 主人이고, (B)가 客人이었다면 이 發話는 實現不可能한 것이 되고 만다.

다음 對話에서도 이러한 事實은 確認된다.

- (40) A: 누가 지레가 크느냐? (누구 키가 크—.)
 B: 야이 지레가 클꺼우다.
 C: 아니우다, 야이 지레가 큼네다.
- (41) B: 커영허민 우리 맞추어 보카? (그러면, 우리 맞추어 볼까?)
 C: 게, 맞추어 보자. (그래, 맞추어 보자.)
- (42) B: 이거 보라. 느 지레가 크지, 이. (이것 봐. 네 키가 크지, 이.)
 C: 참 나 지레가 크다, 으. (참, 내 키가 크다, 응.)

(40)에서 (A)는 누구의 키가 큰지에 대하여 (B)와 (C)의 實然的인 判斷을 要求한다. 여기서 (B)는 (C)의 키가 클 것이라는 蓋然判斷을 하고, (C)는 (B)의 키가 크다는 實然判斷을 한다. (41)에서 (B)와 (C)는 자기들의 키를 맞추어 보기로 한다. 그 結果 (42)에서 (C)의 키가 '크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知覺判斷을 한 것이다. (B)의 '크지'는 (C)의 키가 크다는 것을 判斷하고 이를 (C)에게 確認시킨다. (C)의 '크다'는 자기의 知覺判斷에 의하여 이를 認定한다.

'크다'는 發話時 現狀態에 대한 知覺判斷이다. 그러나 키를 서로 대어 보기 前에는, (B)는 (C)의 키가 크리라는 蓋然判斷을 하고 있었고, (C)는 (B)의 키가 자기보다 크다는 實然判斷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들 머리 속에 하나의 常念으로서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常念은 日常生活의 經驗 속에서 이루어진다. (40)에서 (B)와 (C)의 發話는 이 常念에 의한 判斷으로 본다.

敘述語가 名詞인 경우에도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 (43) A: 이던 차갈밭이우다, 예. (여긴 차갈밭이군요.)
 B: 이 세겐 ㄷㅁㅁ 차갈밭인다. (이 지방은 모두 차갈밭이—.)

(A)는 發話時的 現狀態에 대한 知覺判斷의 陳述이다. 그러나 (B)는 '이 세계'에 대하여 話者가 경험한 內容의 陳述이다. 이것은 話者의 經驗에 의한 實然判斷이다.

V

淸州島方言의 形態素 '-느-'에 대한 一聯의 考察을 試圖하였다. 이 形態素는 서울方言의 形態素 '-느-'와 根源的으로 同一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形態와 分布 그리고 意味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보여 준다.

이 形態素의 異形態는 '-느-, -느-, 네'로 分析되었다. 母音系語尾 앞에서는 '-느-', 子音系語尾 앞에서는 '-느-'으로 實現된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末音이 子音인 語幹形態素가 앞에 오면 母音間에 세 子音이 나타나는 難處한 狀況에 놓이게 된다. 이 難點은 後行語尾 '-다'의 'ㄷ'을 脱落시킴으로써 克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異形態 '-네-'는 ㅎ서體에 나타나는데 中世國語의 소위 現

在形語尾 ‘-ㄴ-’ 와 恭遜法語尾 ‘-이-’ 의 發展의 形態로 보았다. E.A.Nida 에 따라 ‘-네-’ 와 ‘-에-’ 로 分析하였다.

이 形態素는 語幹形態素와 소위 文體法語尾 사이에 나타난다. 語幹形態素는 動作動詞, 狀態動詞, 그리고 名詞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文體法語尾는 平敍法과 疑問法에 局限된다.

이 形態素는 話者의 經驗에 의한 判斷을 陳述하는 文에 나타난다. 이 點에서는, 話者의 知覺判斷의 陳述인 이틀테면 ‘먹었찌, 먹엇찌, 먹었씨라, 먹어서라’ 등과 다르며, ‘먹을꺼여, 먹으러여’ 의 ‘-ㄴ꺼-, -크-’ 들과 同軌에 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느-가 實然判斷이란 點에서 後者들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話者의 經驗에 의한 實然判斷, 이것이 이 形態素의 意味라고 생각된다.

이미 註9에서 指摘된 疑問을 비롯하여 아직도 解明되어야 할 課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後稿를 期約한다.

參 考 文 獻

- 金完鎮(1975) :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國語學會.
- 李基文(1974) :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李崇寧(1957) :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延世大出版部.
- 玄平孝(1974) :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 洪宗林(1975) :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 「韓國國語教育研究會論文集 8」
- _____ (1976) :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 에 대하여”, 「金亭奎教授 停年退任紀念 論文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 _____ (1980) :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크-’ 에 대하여”, 「金亭奎博士古稀紀念論叢」, 서울大師大 國語教育科.